

**OPEC** 體制維持위한 減量 합의

不安感 속에 結束 · 國際油價展望

우리 나라는 1985년 이전처럼 18달러 이상의 高油價體制로 들어서지 않는범위내에서 국제 原油價가 適正線에서 安定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石油輸出國機構(OPEC) 13個會員國 石油長官들은 近2週日간의 陣痛끝에 11月 28日 1989年 上半期 6個月 동안 會員國의 1日産油量 上限線을 1,850萬배럴로 정하고 公示油價는 배럴당 18달러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産油協定에 調印하였다.

OPEC長官들은 현재 실제로 1日 生産量이 2,250萬배럴에 이르고 있는 과잉공급량을 줄이고 배럴당 10~12달러로 下落된 油價회복을 위하여 지난 11月 17日 오스트리아 빈에서 價格 · 戰略委員會 合同會議를 시작하였다. 이회의에서는 이라크의 쿼타북귀 등 새로운 原油生産協定을 마련하기 위한 會員國間的 이해를 조정하고 定期總會에 제출할 권고안에 대해 토의해왔다.

11月 21日부터 제84차 定期總會가 개막되어 雜航을 거듭한 끝에 24日 暫定合意를 보고 28日에 이르러 協定에 調印하였다.

○ ○ ○

번번히 矢敗를 거듭해온 物量問題에 대해 이와 같은 협상에 성공한 것은 本會議전부터 이란을 비롯한 13個會員國들의 끈질긴 막후교섭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당초 이란이 自國과 같은 쿼타를 이라크에게 줄 수 없다는 강경자세를 철 회하고 다른 會員國들도 自國에 할당된 쿼타를

이라크에 양보함으로써 협상의 타결을 보았다.

또한 이번 협상이 깨질경우 油價는 배럴당 5달러까지도 暴落할 것이라는 不安感 때문에 결국 OPEC會員國들을 結束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란의 立場은 회의가 결렬되어 油價가 폭락될 경우 外換事情이 이라크보다 심각할 뿐 아니라, 이라크의 産油量이 최근들어 이란을 능가하고 있음으로 이라크를 쿼타시스템에 편입시킨다는 것은 과잉생산에 제동을 거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1989年 6月까지 有効하게 될 이번 協定の 意義는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

① 이번 會談에서 최대의 爭點이 되어온 이란 · 이라크의 쿼타배분문제를 兩國에 204萬 배럴씩 같은 수준의 쿼타를 할당함으로써 이란 · 이라크 戰 終熄이후 OPEC內的 政治問題 해결에 큰 進展을 가져왔다.

② 지난 1986年 6月 이후 쿼타배정에 불만을 품고 OPEC體制를 이탈해 OPEC의 結束과 信賴性을 실추시킨 이라크를 2年 4個月만에 體制안으로 끌어 들이는데 成功하였다.

③ 各會員國別로 産油쿼타 算定基準을 明示하여 이탈을 방지한 점 등이다.

○ ○ ○  
油價의 暴落에 대한 不安과 共同의 걱정 때문

에 이번 OPEC總會에서 키타랑의 합의에 성공했다고는 하나 과연 會員國들이 이 決議를 지켜 줄 것인지는 아직 未知數이다.

회의가 끝난 11月 30日 OPEC 루크만議長은 TV기자회견을 통해 OPEC가 힘들게 합의한 產油量減縮協定은 순조롭게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며 배럴당 18달러선까지 油價가 회복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위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현재 1日 200萬배럴을 생산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이다. 1日 150萬배럴의 키타를 원하고 있는 UAE가 이번에 배정된 98萬 8,000배럴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리비아는 이라크 때문에 自國키타의 일부를 포기한 것에 不滿을 품고 있고 쿠웨이트는 103萬 7,000배럴을 배정받아 현재 생산량보다 1日 60萬배럴을 減産해야 할 처지에 있다. 그밖에 戰後復舊에 급급한 이란, 累積 債務로 고민하는 베네주엘라 등이 協定の 實効性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非OPEC 產油國들의 協力與否도 불투명하다. 때문에 OPEC가 產油量減産協定을 武器로 國際油價를 회복하기에는 力不足이라는 分析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OPEC 產原油가 世界에너지 총수요에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감소되어 1973년에 36.5%에서 1987년에는 17%에 불과했다. 이제 OPEC 단독의 產油量 조정만으로 世界油價를 左之右之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 ○ ○

대부분의 專門家들은 현재 世界的으로 많은 原油備蓄量 및 非會員國들의 產油量 증가 OPEC會員國들의 키타준수여부에 대한 의문 등으로 油價上昇은 13달러 수준에서 머무르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현물시장의 동향은 11月 26日 이란·이라크가 키타랑 수락후 北海産 브렌트油는 런던 국제시장에서 1.65달러가 오른 14.42달러에, 中東産 두바이油는 1.30달러가 오른 12달러에 거래되었으나 11月 30日 루크만議長의 감축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견이 있은후 뉴욕상품거래소는 0.73달러가 下落한 15.03

달러에 폐장되고, 런던시장에서도 14.38달러로 5센트가 내리고, 두바이油도 11.85달러에 거래되었다.

○ ○ ○

OPEC總會에서 公示油價를 18달러로 유지하고 1日生産량을 1,850萬배럴로 합의 하였으나 국제 原油價는 流動的인 상태에 있다.

그러나 政府는 국내 石油제품가격 체계에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배럴당 12달러선에서 原油를 수입하고 있으나 국내 油價體系는 基準原價를 18달러로 換率은 695원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원유도입 가격이 18달러선까지 上昇하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제원유가격이 오를 경우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나라의 年間 油類 소비량은 2억 2,000만배럴 수준으로 油價가 1달러 오르면 2억 2,000萬달러의 추가부담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1985년 이전처럼 18달러 이상의 高油價體制로 들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原油價가 適正線에서 安定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編輯室).

#### OPEC회원국별 생산키타

(단위 : 만배럴 / 日)

區 分	새키타	기존키타
사우디아라비아	452.4	434.3
이 란	264.0	236.6
이 라 크	264.0	(154.0)
베 네 수 엘 라	163.6	157.1
나 이 지 리 아	135.5	130.1
인 도 네 시 아	124.0	119.0
쿠 웨 이 트	103.7	99.0
리 비 아	103.7	99.6
U A E	98.8	94.8
알 제 리	69.5	66.7
카 타 르	31.2	29.9
에 콰 도 르	23.0	22.1
가 봉	16.6	15.9
계(생산한도)	1,850.0	1,506.0